

5월의 안테나

노영한

(본지 편집국장)

쉬운것 부터 재혁을

의식구조 개혁운동이 한창이다. 우리 양계업계야 모든것이 잘 왜나가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아직도 불신감, 지나친 이기주의 때문에 병들어 가고있는 부분이 많은것을 볼 수 있다.

양계경영비 중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의 예를 들어본다. 우선 구매과정 부터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있다.

한때 배합사료의 상한가격을 정부가 통제하였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산란계에게 종계사료를 먹이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배합사료 가격이 자율화된 지금까지도 종계사료를 구매여 고집하는 까닭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종계사료를 종계에게만 먹이면 12~13만t 이면 충분하지만 현재 30만t이상이 팔리고 있으며, 80년도의 30만 8천t에서(전체 산란사료의 27.3%)81년에는 31만 6천t(29.9%)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산란사료는 닭이 알을 많이낳게 하는 것이고 종계사료는 알을 많이낳는것 외에 수정율, 부화율을 높이기 위해 비타민, 무기물등 미량물질과 아미노산 조성을 보강하여 만들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으로 kg당 약 10원정도 값이 비싸게 판매되고 있으며, 종계사료가 산란계사료 보다 산란율을 높이는 것이 아닌데도 산란계에게 조차 종계사료를 구매여 먹이는 이유는 다음 몇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 값이 비싼것이 품질이 우수할 것 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직도 양계업자의 통념이 아닌가 한다.

이는 비단 양계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흐르는 잘못된 풍조이므로,양계업계만은 이제 사료값도 자율화 되었으니 이런 의식구조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불신풂조로 산란계 사료는 품질이 나쁠것

이라는 생각이다.

산란계 사료를 먹여 평균75%의 산란을 할 경우 종계사료를 먹이면 80%의 산란을 할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계사료는 산란계 사료보다 산란율을 더 높이는 사료가 아니고 더 많이 튼튼한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한 사료임을 알아야겠다.

3.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시정되어야 할 점으로는 어쩔수 없어 먹이는 경우이다.

그간 사료유통이 신용판매(의상판매)가 주류를 이루었고 상대적으로 채란업계의 불황은 의상값의 누적으로 나타나 의상값 때문에 거래 사료회사를 바꾸려고해도 바꿀 수 없는 형편에서 종계사료를 먹이게 된다. 사료공장의 경쟁이 심해 가격을 낮추다 보면 회사에 따라서는 양축가가 원치않는 사료도 만들게 되고 이런경우 사료공장은 품질에 불만이 있는 양축가에 종계사료를 권하게 되는 경우이다.

앞으로는 산란사료를 제대로 만들고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있으므로 하루 빨리 정상화 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경우에서 실제 종계사료를 먹인다면 영양분의 손실이고 내용은 산란용 사료인데 이름만 종계사료로 가격을 더 지불 한다면 이는 양축가를 우롱하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

끝으로 양제업자에 바라는 것은 모든 양제장의 생산성과 관제가 있는 문제들을 사료와 약품으로 해결하려는 의식구조를 개선하고, 사료의 이름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료의 품질이 산란을 더 좋게 한다는 것을 기록으로 검토하고 실증해야 될 것이다.

사료회사도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식의 종계사료 보다는 사료이름과 내용이 같은 사료를 양축가에 권장하여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양제업자는 옛날에는 가격이 모두 동일해서 품질로만 비교 하였으나 이제는 품질과 가격이 다양화 되었으므로 항상 사료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정보에 밝아야 하며 이렇게 되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있다.

ILT 방역은 철저한 격리로

전염성 후두기관염(ILT)에 관한 기사는 본지 4월호에 자세히 게재 되었으므로 이를 참고 하기 바라며 이 기사가 나간후 본회에 많은 전화문의가 있어 몇가지를 이난을 통해 답하고자 한다.

첫째 요즘 닭이 좀 이상하면 모두 ILT 로 진단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것 같다. 많은 호흡기병이나 ND 등 다른 질병과는 구분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ILT 증상과 유사한 닭은 해당가축위생 시험소나 안양 가축위생연구소에 가검물을 보내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모든것을 백신으로 해결 하려는 생각이다. 뉴캐슬과 같이 현재 백신이 있는것도 백신 만으로는 완전한 방역이 어려운 것을우리가 체험으로 알고 있지만 ILT의 경우는 또 다르다.

백신자체가 미약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병원성이 있으며 어린병아리에 있어서는 더욱 위험하다. 백신을 한닭이 보균체가 되어 ILT 발생의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잘못 전계균에 백신접종을 할 경우 우리나라 전국이 ILT 상재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한번 ILT에 감염되었던 닭은 보균체로 계속 병원체를 배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절이 불가능 하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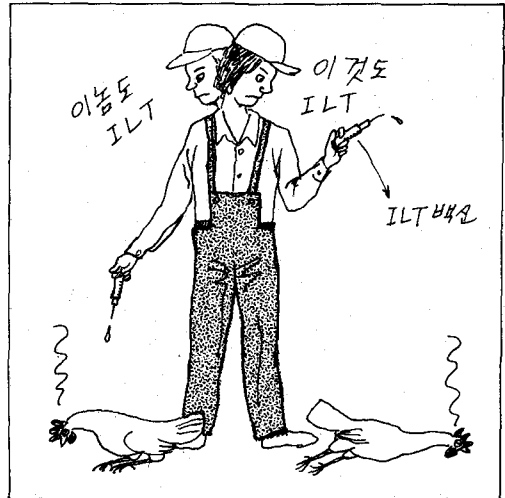
또 예방접종을 한 닭들이 낮은 항체형성이 되어 ILT에 감염될 경우 증상은 나타내지 않은 상태에서 보균체로 계속 병원체를 확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질병의 경우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흔히 백신하면 뉴캐슬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ILT의 경우는 백신에 대한 좀더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강화, 대구, 인천등 여러곳에서 발병하였고 그외에도 서울 근교와 공주, 일산, 흥성 등 곳곳에서 발병했다는 미확인 소식들이 들려 오는데 양축가들은 어떻게 대처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행이도 ILT는 전염속도가 빠르지 않고 주로 간접접촉에 의해 전염되는데 아직 발병하지 않은 농장은 철저한 외부로부터의 격리만이 ILT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하겠다.

외부 난좌의 사용금지나 외부인 출입금지 등과 닭장수의 닭어리등이 양계장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출입통제가 필요하다.

특히 양계장이 밀집되어 있는 단지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발생되지도 않은 농장에서 백신접종이 잘못되어 ILT 상재지를 자초해서 만드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기왕에 한번 발병된 농장은 백신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긴급조치로 백신이 공급 되어질 것으로 보이며 백신의 보급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바라기는 발병한 곳의 닭들을 일정 보상후에 모두 소각 매몰하여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ILT를 아주 근절해 버리는 방법이다.

**육계사료 물량을
주시해야**

우리가 신문을 보면 경기선행예고지수라는 말이 나온다.

부로일러 가격을 예고 하는 것으로 부로일

러 전기사료처럼 정확한 것이 없다. 농수산부 사료과의 협조로 전기사료 생산량을 매 10일 간격으로 발표하고 있으므로, 생각하면서 육계를 하는 농장들은 생산조절에 많은 이용을 하고 있다.

언제든지 협회로 전화 한통화면 (752-3571 ~ 2) 지난 10일간의 사료 생산량을 알 수 있고 그것도 불편하면 협회 담당자에게 부탁만 해 놓으면 10일 간격으로 엽서를 보내준다.

항상 육계사료 생산량을 주의깊게 관찰하는 본회 산하의 분회나 육계단지들은 지금 거의 입추를 중단한 상태에 있다. 전기사료 기준으로 2월보다 3월에 49.5%나 폭증하였고 3월에 비해 4월에 다시 30%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이 스스로를 망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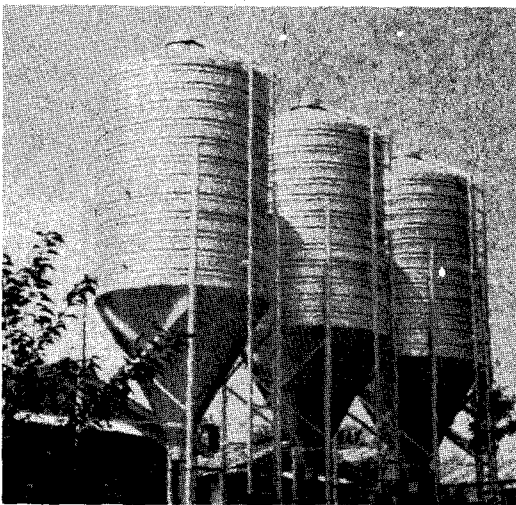
마음에 기름이(지방)지면 마음이 무거워져 움직이지를 못하게 된다. 타성에 의해서만 움직일 따름이다.

얼마전 미국에 다녀온 분이 그곳 친구의 농장에 초청받아 간적이 있다고 한다. 큰 연못이 있고 많은 아름다운 오리떼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주인의 설명이 저들이 모두 집오리가 아니고 집오리는 몇마리 되지 않고 나머지는 들오리들이 왔다가 모이를 주니까 날아가지 않고 편하게 주워 먹다가 몸에 기름이 끼니까 몸이 무거워 날라가지 못하고 집오리가 되었다고 한다. 수년 계속된 부로 일러의 호황과 불황 막연히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해뜰날이 오겠지 하는 생각은 마음에 기름이 낀 생각이다.

지금 당장 값이 좋으니까, 나도 길러야지 하고 생각한다면, 지금당장은 편안 하지만 나중에 몸이 무거워 날지 못하고 언젠가 잡혀먹는 들오리 신세가 되고 만다.

마음에 낀 지방을 걷어내고 생산조절을 스스로 할줄 아는 농장만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경비·노력을 절약해 드립니다



취급품목

사료저장조(FRP, Steel)
 자동부화기(대·중·소형)
 급이기·급수기
 부화장용 작업기구 일체
 부화장 및 계사시설 설계 상담

* 해리스 한국대리점

RF 平 農 畜 機

☎ 평택 (1333) 4-7484, 서울 372-8302